

그분을 그리며

공 박사님, 우리들의 공 박사님

안대혁 엘지전자 엠시연구소 연구위원

컴퓨터에서 글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력, 처리, 출력의 세 박자를 갖추어야 한다.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의 대표는 키보드이다. 키보드로 입력된 글자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언어의 문자를 부호 값으로 바꾸어 저장하여 처리하는 부호 계, 이른바 문자 코드가 필요하다. 또한 그렇게 입력되고 처리되어 저장된 글자를 사람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는 글자의 모양이 필요한데, 그것을 글꼴이라고 한다. 그 글꼴로 저장된 문자를 폰트라고 부른다. 요즘의 컴퓨터 세상에서는 위의 세 가지가 각각 별개로 이루어지지만, 이것을 온전히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처리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다, 바로 ‘타자기’가 그 주인공이다. 한글 타자기를 개발하신 여러 분 중에서 유독 우리에게 잊히지 않는 분이 계시니, 바로 세벌식 타자기로 유명한 안과 의사였던 공병우 박사님이다.

이제 공병우 박사님께서 우리 곁을 떠난 지도 어언 20년 가까이 되었다.¹⁾ 요즘 젊은이들은 그분의 성함을, 그분의 업적을, 그분의 삶과 그 정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단순히 세벌식 타자기를 만들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안과 의사로 아주 일부분만 알고 있을 수도 있겠

1) 공병우 박사는 1995년 6월 7일 향년 88세를 일기로 타계하셨다.

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그분께서 한국에서 소프트웨어를 연구하던 젊은이들에게 미친 영향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크다고 말할 수 있겠다. 나는 공병우 박사님을 가까운 거리에서 모시지는 않았다. 그저 친구와 지인들이 그분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그분께서 하시는 일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 사는 방식을 닦고 싶었기 때문에 한글 문화원을 들락거리게 되었다. 이 글에서 나는 그렇게 내 젊은 시절을 함께했던 공병우 박사님과 그의 추억과 공 박사님께서 뿌린 씨앗이, 그 인연이, 오늘날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워낙 오래전 일이라 내 기억도 많이 퇴색되었고, 내 입장에서 본 이야기만을 적을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 적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찾아내신 분께서는 제게 꼭 알려주셔서 바로잡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

사실 대학 시절부터 나는 유달리 한글과 인연이 많았다. 이른바 개인용 컴퓨터 산업 1세대인 나는 고교 시절부터 8비트 컴퓨터를 끼고 자랐고, 그 컴퓨터에서 한글을 사용하기 위해 거의 몸부림에 가까운 열정으로 한글 관련 소프트웨어와 제품을 만들어 왔다. 1984년부터 애플(Apple) II+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글 입출력 소프트웨어와 고해상도의 하드웨어 방식 한글 카드를 개발하였고,²⁾ 프린터에 한글을 인쇄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도 만들었다. 이는 꽤 잘 팔려 대학 시절의 내 생계를 유지시켜 주었다. 더불어 아이비엠 피시(IBM-PC)에 탑재되는 여러 종류의 한글 카드를 만들기도 했다. 뭐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수십 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나를 한글과 관련된 정보 기술에서 멀어지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말이다.

2) 예전에는 그런 것이 따로 필요했다.

공 박사님을 처음 뵈게 된 것은 아마도 1989년 겨울이었을 것이다. 그 무렵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모 컴퓨터 회사의 연구소에서 임베디드 기기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었다. 공병우 박사님의 한글 문화원 건물에는 당시 한글 문서 편집기로 유명했던 강태진 씨³⁾의 회사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이런저런 인연으로 한글 문화원에 근무하던 분들을 소개 받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김한빛나리 씨,⁴⁾ 정내권 씨⁵⁾와 박홍호 씨⁶⁾를 소개받으며 자연스럽게 공 박사님을 만나 뵈게 되었다. 정내권 씨는 선천적인 소아마비로 쉽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접하기 어려웠지만 예의 그 천재적인 머리로 독학하여 잡지에 글을 기고하며 유명해졌고, 박홍호 씨는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었지만 한글 기계화에 대한 열정으로 교사 생활을 그만두고 정내권 씨를 불러내어 함께 공병우 박사님의 한글 세벌식 자판과 매킨토시에서의 한글 입출력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다. 또한 박홍호 씨는 그다음 해에 '한글 철자법 검사기'를 완성해 내기도 하였다. 게다가 공 박사님의 한글 기계화에 대한 열정은, 돈은 없으나 패기로 가득 찬 주변의 젊은 소프트웨어 창업자들을 불러들여 싼 가격에 건물의 사무실을 빌려 주셨던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학 시절부터 친구인 한글과컴퓨터의 이찬진 씨도 공병우 박사님의 한글 문화원 건물에 첫 사무실을 얻게 되었다. 이찬진 씨뿐 아니라 “특출한 뜻을 가진 젊은이나, 비상한 머리를 가진 후학들에게는 항상 힘이 되어 주어야겠고, 길을 터 주어야겠다는 생각

3) 현 삼성전자 전무.

4) 현 한글학회 부장.

5) 현 엠트레이스사 대표.

6) 현 주식회사 깃든 대표.

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지니고 있는 나의 인생철학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자서전에 쓰신 것처럼, 공병우 박사님 자신을 도와주었던 은사들의 뜻을 이어 후진 양성에 그렇게 힘쓰신 덕분에 오늘날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초석이 그 당시에 만들어지지 않았나 한다. 그다음 해 내가 함께하던 ‘한글코드개정추진협의회’와 우리를 지원한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역시 한글 문화원의 3층에 나란히 자리 잡게 된 것도 그러한 인연이었던 것이다.

아무튼, 워낙에 그들 모두와 친했던 나는 제 집 드나들 듯 한글 문화원에 가게 되었고, 그렇게 공 박사님도 자주 뵈게 되었다. 이른바 교과서에서나 뵈던 훌륭한 위인을 생존하고 계신 동안에 찾아뵈며 좋은 말씀들을 듣고, 식사를 같이하고, 하시고자 하는 일을 돕는 고마운 경험을 내 젊은 날에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만한 것이다. 처음 뵈었던 공 박사님은 생각이 틀에 박힌 노인이 아니라 경험이 많고 열정이 있는 젊은이였다. 당시 주변에 컴퓨터를 못하는 분들께, 컴퓨터를 안 배웠다고 혼을 많이 내곤 하셨는데, “그분은 젊다는 걸 나이로 따지지 않고 얼마나 자기실현을 하며, 사회에 열심히 공헌하고자 하느냐를 잣대로 삼으셨던 겁니다.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이 맨날 청춘이었습니다.”라는 문제안 선생의 말씀이 그것을 대변해 준다. 우리에게도 이것저것 당신께서 필요한 것, 하고 싶은 것, 도와줄 것을 묻곤 하셨다. 당시 공 박사님과 자주 갔던 근처 식당의 부대찌개가 아직도 기억난다. 물론 공 박사님의 차가 주차되어 있던 건물 옆의 좁아 빠진 자투리 주차장도 기억나고…….

그 당시 내가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이른바 ‘완성형 한글 코드’로 알려진 ‘행정 전산망용 한글 코드’가 국가 표준으로 제정된 사실이었다. 이는 유닉스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행정 전산망 주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피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나, 한글의 아주 일부만 사용할 수 있게 한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모든 현대 한글 글자를 사용할 수 있었던 ‘조합형 한글 코드’를 어떻게 다시 그 자리에 올려놓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글을 써서 전문지에 기고하며 반대 운동을 하고 있었다. 여러 해 동안 한글 문화원의 사무실에서 ‘한글코드개정추진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많은 활동을 해 온 결과 1992년에 당시의 국가 표준인 KS C 5601에 복수 표준으로 ‘조합형’을 넣었으나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래서 심기일전하여 1995년에는 국제 표준인 ISO-10646(유니코드라고도 부른다.)에 현대 한글 1만 1,172자 모두를 가나다순으로 집어넣는 데 성공하였다. 물론 그 과정에 많은 분들의 기여가 있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2008년에, 공 박사님의 ‘세벌식’에 근거한 이른바 제대로 된 한글 조합형 코드를 ISO-10646에 반영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 옛 한글과 그 문헌 전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후에도 오랫동안 국문학자 여러분과 문자 코드 전문가들이 이루어 낸 성과이다.

공병우 박사님의 자서전 《나는 내 식대로 살아왔다》의 머리말에 는 ‘자서전을 쓰는 네 가지 까닭’이란 글이 있다. 그중 몇 가지 까닭에 후기를 달아 보고자 한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한글을 500여 년 동안 줄곧 천대만 해 온 우리 겨레가 이제부터라도 한글만 쓰면서 한글 기계화의 입력과 출력을 세벌식으로 꺾어야 우리 겨레의 문화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겨레 앞에 유언처럼 말하고 싶은 것이요,”라고 쓰셨다. 그리고 “나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싸움을 많이 했는데 왜 싸웠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싶어서이다. (중간 생략). 세계적으로 위대한 한글을 아직도 천대하고 있는 남한 동포들에게 한글 기계화에 관한 올바른 과학을 어찌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내 생각을 조

금이라도 밝히려는 것이요.”라고도 하셨다. 나는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 이를 실천해 왔다. 그중에 비록 ‘세벌식 자판’만은 보급하지 못하였지만, 옛 한글을 포함한 한글 코드와 그 출력에 사용되는 서체의 규칙에까지 그 원리를 포함시켜 국제 표준을 만들었고, 이는 현재 우리 국민 모두가 매일 쓰고 있는 것이다. 공 박사님께서 원하시던 그대로야 아니겠지만, 지금은 어찌 한글이 기계화되어 처리되는지를 모르고 사용하는 세상을 만들었기에 그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공 박사님의 10주기인 2005년에 한글학회에서 열린 추모식에 공 박사님께서 남기고 간 ‘한글사랑, 나라사랑’의 뜻을 이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리곤 2006년 공병우 박사님 탄생 100주기에 맞추어 한글날 국경일 만들기 사업을 벌였다. 비록 작년에야 그 뜻을 이루었지만 말이다. 내년에 있을 20주기에는 다시 한 번 내 짧은 날의 큰 스승이셨고, 기둥이셨던 공 박사님께, 지난 10년간 이룬 것을 자랑하고 칭찬도 받고 싶으며, 같이 모일 여러분과 함께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리고 싶다. 아! 공 박사님, 우리들의 공 박사님!